

# MO이론표기를 위한 원소 한글 표시법

현재 화학에서 가장 잘 사용되는 루이스 전자 점씩 표현은 매우 많은 오류로 인하여 현대 화학에서는 한계를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편리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. 하지만 루이스 구조로 MO이론을 설명 할 수 없기에 루이스구조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오류를 범하기 쉬워지고 화학을 배우는 학생들에 있어서 혼란을 가중하기에 MO이론을 쉽게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 연구하고자 하였고 그러 던 중 원자의 표기 방법이 MO이론을 적용하기에는 원소 표현에서 직관적인 정보량 전무함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습니다. 따라서 그러한 기호를 만들려던 중 떠오른 것이 한글이었고 한글은 한문자 안에 많은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다음은 한글 주기율표 표기법 원칙입니다. (위드에서는 하지 않는 글자가 있어 직접 쓴 기호도 있으니 양해를 구합니다)

## 원소 한글 표기 규칙

### 1.전체

최외각 주기n에 해당하는 ns (n-2)f (n-1)d np에 대한 것만 표기한다.

### 2.주기 표시법

무음, ㄱ, ㄴ, ㄷ, ㄹ, ㅁ, ㅇ 한글에서 받침으로 오며 모두 본래의 받침음을 가지고 있다.

### 3.오비탈 자음 표시법

(1)s오비탈 전자가 1개일 때 ㅇ, 전자가 2개일 때는 ㅎ로 사용 되며 S오비탈 주기에 해당되는 다른 오비탈(p,d,f)가 없을 경우 초성으로 오며 그 외에는 받침으로 간다.

(2)p<sup>1</sup>ㄱ으로 표기 p<sup>2</sup>ㄷ으로 표기 p<sup>3</sup>ㅁ으로 표기 p<sup>4</sup>ㅋ으로 표기 p<sup>5</sup>ㅌ으로 표기 p<sup>6</sup>ㅈ으로 표기한다.

(3)d오비탈은 d 전자수를 순서대로 (1)ㄱ,(2)ㄴ,(3)ㄷ,(4)ㄹ,(5)ㅁ,(6)ㅂ,(7)ㅅ,(8)ㅇ,(9)ㅈ,(10)ㅊ 표기한다.

(4)f오비탈은 f 전자수를 순서대로 (1)ㄱ,(2)ㄴ,(3)ㄷ,(4)ㄹ,(5)ㅁ,(6)ㅂ,(7)ㅅ,(8)ㅇ,(9)ㅈ,(10)ㅊ,(11)ㅌ,(12)ㅋ,(13)ㅍ,(14)ㅎ 표기한다.

### 4.자음 오비탈 특수 규칙

(1)ㅈ은 그 주기에 해당하는 s<sup>2</sup>d<sup>1</sup> 표기한다. ㅊ은 그 주기에 해당하는 s<sup>2</sup>d<sup>2</sup> 표기한다. 받침으로 오며 s오비탈이 비어있고 원소 주기에 d 오비탈만 있는 경우 초성으로 올려준다.

### 5.오비탈 모음 표현

(1)그 주기 n에 대해서 전자가 ns (n-2)f (n-1)d np순으로 전자를 찬다고 가정하고 가장 나중에 찬 오비탈이 s 오비탈이면 'l'로 표현하고, p오비탈이면 'ㅍ', d오비탈이면 'ㄷ', f오비탈이면 'ㅍ'로 표기한다.

(2)'ㄷ' 표현 되는 원소에서  또한 읽은 때 ㅇ,ㅎ을 + ㄷ를 붙여 주어 읽는다.  
(ex) ㅎㄷ=을회

(2)'ㅍ' 표현 되는 원소에서  또한 읽을 때 ㅈ,ㅊ을 + ㅍ를 붙여 주어 읽는다.

현재 이 기호들은 정확히는 Mo이론의 연산을 위한 기호이며 원자 간의 경향을 과학하기

쉽게 만든 것이다. 문자화 하고 읽을 수 있는 문자로 만들었기에 쉽게 외울 수 있으며 만약 이 원소 표기법으로 표현하면 따로 경향을 찾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글 모음 조합법을 이용하여 Mo속에 든 원자 오비탈 정보를 작성하며 MO이론을 대조하며 연관성을 찾고 몇 가지를 조합에 대해 MO모델표를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현재는 이론적으로는 완성되었으나, 자료의 한계로 검증과 적용이 힘들어 대학에서 추후에 완성시킬 계획입니다.



서명

2009년 9월 11일

정영관